

“철학이 꽃피는 카페로 오세요”



지난달 30일 성진기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문을 연 철학카페 '필라소피아'에서 철학 강의를 듣는 이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철학이 꽃피는 카페.’

지난 1998년 독일 여행을 간 성진기(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을 하나 갖게 됐다. 작은 토론과 강의가 진행되는 프랑크푸르트의 카페 ‘담케 바(denkbar)’를 찾은 성교수는 광주에도 이런 공간을 꼭 만들고 싶었다.

18세기 유럽을 풍성하게 했던 게 바로 평범한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간 ‘살롱문화’라는 점도 의욕을 부추겼다.

12년 후, 성 교수는 오래전 ‘꿈’을 깨내 들었다. 지난 6월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인근 빌딩에 사비를 털어 철학 카페 ‘필라소피아’를 오픈했다.

사실, 성교수는 지난 1996년 광주시 동구 학동에 같은 이름의 철학 카페를 열고, 황필호·이태호·이무석씨 등이 참여하는 강좌를 개최한 적이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몇개월 만에 문을 닫아야 했다.

성교수가 오래 전 꿈을 다시 쫓게 된 것은 사람들의 욕구를 읽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정년 퇴임한 성교수는 음악감상실 베토벤과 무등도서관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철학 강좌를 꾸준히 열어왔다. 베토벤에서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함께 읽고, 무

등도서관에서는 ‘서양철학사’를 강의했다. 성교수는 함께 공부하며 의외로 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작은 토론과 강의가 진행되는 프랑크푸르트의 카페 ‘담케 바’를 찾은 성교수는 광주에도 이런 공간을 꼭 만들고 싶었다.

성진기 교수 전남대 인근에 ‘필라소피아’ 오픈 함께 모여 책 읽고 토론하는 어른들의 사랑방 7월 매주 금요일 이종목 교수 ‘행복학’ 강의도

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의 연구공간 ‘수유+너머’와 ‘철학카페 느티나무’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철학 등 인문학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한 사랑방을 만들고 싶었다.

현재 이곳에서는 베토벤 팀이 다시 모여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마틴 코헨의 ‘30가지 철학 이야기’와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함께 읽고 있다.

본격적인 첫 강좌는 ‘인문학, Summer Sail I’이라는 타이틀로 시작한다. 7월 2일부터 한달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30분~4시에 전남대 심리학과 이종목 교수의 행복학 강의를 펼친다. 이교수는 ‘심

리학 노트에 쓴 행복 이야기-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는 주제로 강의한다.

8월에는 전남대 사학과 최혜영 교수가 바톤을 이어받는다. 최교수는 한달 동안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교수는 또 9월에는 분석철학 전공자들이 참여,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이론’에 대한 강의도 준비중이다.

또 철학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문화, 역사,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의 원로 화가를 초청해 ‘그림 이야기’를 듣고, 스님을 초청해 ‘불교 이야기’를 듣는 등 다채로운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작은 음악회 등도 구상중이다.

“처음 이 공간을 만든다고 하니 몇몇 사람들이 왜 사서 고생했는지

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젊은이들 놀이방은 있는데 왜 어른들 놀이방은 없냐고(웃음). 함께 모여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어른들 놀이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련하기는 했지만 이 공간이 전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모여서 만들어 가는 거죠.”

이 공간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성교수가 자리를 지킬 때면 그냥 편안하게 들려 차 한잔 마시거나, 음악을 듣거나, 서가에 꽂힌 책을 읽으면 된다. 성교수가 자리를 비울 때는 이웃한 한의원 행정실에 열쇠를 맡겨두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슨 일든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협력자도 생기고 응원자도 생기거든요. 우선 내 발품 팔고 호주머니 털고 하더라도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누가 디지털 피아노도 한 대 가져다 놓겠다고 하더라구요. 책상 등 집기를 챙겨준 사람들도 있구요.”

성교수는 “철학카페가 많은 이들의 사랑방으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7~8월 강의는 선착순 20명에 한해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011-9603-324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장우 가옥 ‘문화공간’ 으로

동신대문화박물관 ‘남도 사진 영상전’ 열어... 8월에 천연염색전도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고택 이장우 가옥은 지난해 열린 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장으로 활용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행사 후 잠시 닫혀 있던 이장우 가옥이 다시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동신대 문화박물관(관장 이상필)은 오는 30일까지 ‘남도 사진 영상전’을 이장우가옥과 박물관 갤러리에서 동시에 연다. 8월 중순에는 천연염색전도 준비하고 있다.

이장우 가옥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동신대 객원교수를 맡았던 고(故) 이경도 교수의 사진들이다.

이 교수는 여수·순천 사건부터 6·25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의 크고 작은 아픔의 순간들을 사진에 담은 작가로 그의 작품 안에 담긴 온갖 상황들은 또 다른 풍경이 되어 다가온다.

동신대 문화박물관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것이다.

고영준·김대건·김용현·민병태·송태백·이설재·정정호·조현택·차정환·한창호·황동진 등 18명이 참여했다.

전시된 사진 대부분은 우리의 풍경을 담고 있다. 작가들은 진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풍경을 포착하여 소중한 작품을 만들어 냈다.

고영준씨는 옥상에서 본 도심의 풍경을 담았고 송태백씨는 소나무의 우



전시장으로 활용되는 광주시 민속자료 1호 이장우 가옥.



한창호 작 '지리산 운해'

람한 모습을, 한창호씨는 지리산 운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잡았다.

광주시 민속자료 1호인 이장우 가옥은 대문간, 곳간채, 행랑채, 사랑채, 안채로 배치된 상류 주택양식의 기와 집으로 지난해 열린 광주디자인비엔

날에서 탤런트 김수미 초청 규방 다담, 전통혼례식, 전시·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된 ‘어울림전’이 열려 호평을 받았다.

문의 061-330-382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서양화가 조운성씨 개인전

6일까지 전주시 서신동 서신갤러리

서양화가 조운성씨가 6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서신갤러리에서 ‘씨앗으로부터 II(From Seed)’를 주제로 개인전을 갖는다.

조씨는 일상에서 흔히 보는 상포 등의 단순한 기호를 새롭게 해석해 회화의 언어로 형상화하는 작가. 이번 전시에서도 ‘씨앗으로부터’기호적 풍경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작들은 그동안 작업했던 소재에 대한 기표적 특성의 강조와 재구성에서 더 나아가 화면구성에서의 자율성과 의미의 확장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상이다.

이를 위해 소재의 형태를 회화적으로 변형, 왜곡하여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존재하는 공간과 상상의 이미지를 자유롭게 구성될 수 있도록 했다.

조씨는 조선대 회화과와 동 대학원 출신으로 8차례 개



‘씨앗으로부터’

인전, 대한민국 청년미술제전,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기획 초대전 ‘자아찾기’, 신세계 갤러리 주최 ‘젊은 예술가의 초상전’ 등 굵직한 단체전에 참가했다. 무등회, 라이브회 회원이며 조선대 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문의 063-255-165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문화 전문 인터넷신문 ‘문화통’

‘문화통 & 아시아’ 창간호 냈다

문화 전문 인터넷 신문 ‘문화통(www.mtong.kr)’이 창간 1주년(7월 14일)을 맞아 ‘문화통 & 아시아’ 창간호를 냈다.

창간호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글을 실었으며 ‘문화통에 바란다’에서는 이병훈(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황영성·강연준(화가), 최규철(광주예총 회장), 문순태(소설가)씨 등 문화계 인사들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광주일보 편집국장 등을 역임한 문화 전문가 지형



원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문화통’은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 관련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지역 예술인(60여명)들의 생애와 예술 세계, 예술 단체(100개), 향토축제(80개) 전라도 맛집(100여곳), 문화 캘린더, 남도의 5일장 등 문화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는 전문 사이트다. 또 아이티 난민 돕기 자선공연을 주최했으며 광주문화발전소도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2-226-10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수형시인 시집 ‘시디신 뒤안길’ 펴내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이수형(48) 시인이 두 번째 시집 ‘시디신 뒤안길’(시와사람 펴냄)을 펴냈다. 첫 시집 ‘영산강’ 이후 10년 만에 내는 것이다.

이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도 직박한 남도 정서를 살려 지난한 삶의 현장에서 느낀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맹렬히 질타한다. 또한 냉철한 이성적 시각으로 자아와 세계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등 다양한 시의 스펙트럼을 투영하고 있다.

특히 ‘심우(毒牛)’를 위한 합장(合掌) 연작 등을 통해 고단한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쓰디쓴 고뇌와 상처를 어루만지며 자신의 실존에 대해 뜨겁고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진다.

노철 전남대 교수는 “이번 시집은



수선스러운 거리에서 뒷담미를 노리는 차가운 기운을 감지하는 걸음걸이로 가득하다.”고 해설했다.

이 시인은 나주 출신으로 한국작가회의와 (사)민족 예술인총연합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전주대사상’ 창작 관서로 장편사설 공모전에 입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BS-그린비료(주) 이사로 재직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문화재청 ‘희귀자료’ 수집

문화재청(청장 이근무)은 문화재 관련 희귀자료를 일반을 대상으로 8월31일까지 수집한다.

수집대상 자료는 문화재 행정제도의 변화, 사건·사고 관련 희귀 문서, 문화재 관련 행사에 방문한 귀빈의 사진과 영상, 60~70년대의 고공·유적지 입장권 등이다.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서 제출양식을 받아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우편 또는 이메일(bhk6569@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연남수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상무점 | 영화사상 | 컬럼버스시네마 | 이남점

1관 나이트&데이 (154)	필립 모리스 (184)
2관 맨발의 꿈 (연재)/필립 모리스 (184)	
3관 방자전 (184)	
4관 나이트&데이 (154)	
5관 포화속으로 (124)/파괴된 사나이 (184)	
6관 슈렉 포에버 (3D 더빙) (연재)	
7관 슈렉 포에버 (연재)/여대생 기숙사 (194)	
8관 스폰타이스 (184)	
9관 포화속으로 (124)	
10관 파괴된 사나이 (184)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 호남최대주최장 / www.joycbc.com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이남점 동시개봉!!

MEGABOX

1관 슈렉 포에버 (연재) 최고급판
2관 나이트&데이 (154)
3관 방자전 (184)
4관 스폰타이스 (184)
5관 필립 모리스 (184)
6관 A-특공대 (154)/맨발의 꿈 (연재)
7관 파괴된 사나이 (184)
8관 포화속으로 (124)
9관 파괴된 사나이 (184)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최특별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과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고속 영상요금 부과

구. 권면역국사거리 ☎ 1544 - 0600

CINUS

1관 파괴된 사나이 (184)
2관 포화속으로 (124)
3관 나이트&데이 (154)
4관 맨발의 꿈 (연재) / 방자전 (184)
5관 A-특공대 (154)/나이트&데이 (154)
6관 슈렉 포에버 (연재)
7관 슈렉 포에버 (3D) (더빙) (연재)

복구보전소 건너편 ☎ 1544-0070, 511-1000

색깔있는 영화상편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